

뉴스홈 | 최신기사

-프로야구- 김광현, 다승.탈삼진.평균자책 1위(종합)

송고시간 | 2008-10-03 20:55



천병혁 기자
기자 페이지



투수3관왕을 향해!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6승으로 다승 1위를 확정된 SK 와이번스 에이스 김광현이 3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KIA 타이거즈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김광현은 이날 경기에서 4이닝 이상 무자책점으로 던지면서 탈삼진 6개 이상을 잡아내면 투수 3관왕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minu21@yna.co.kr

(서울=연합뉴스) 천병혁 장현구 기자 = 데뷔 2년만에 국내프로야구 최고투수로 우뚝 선 김광현(20.SK)이 올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투수 타이틀 3개 부문 단독 1위로 나섰다.

김광현은 개천절인 3일 광주구장에서 벌어진 2008프로야구 KIA와 원정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나서 7이닝동안 탈삼진 12개를 기록하며 2안타 2실점(비자책)으로 막았다.

비록 김광현은 2-2로 맞선 8회 교체돼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삼진 12개를 보태 시즌 150개를 기록, 류현진(143탈삼진, 한화)을 제치고 부문 1위로 나섰고 평균자책점은 2.39로 끌어내려 윤석민(2.44, KIA)을 제치고 역시 1위가 됐다.



이로써 김광현은 다승(16승4패)과 탈삼진, 평균자책점 3개 부문 1위가 돼 '트리플 크라운'을 바라보게 됐다.

27년 역사의 국내프로야구에서 주요 타이틀 3관왕에 오른 투수는 선동열(1986년, 1989년-1991년)과 류현진(2007년) 뿐이었다.

그러나 탈삼진 2위 류현진과 평균자책점 2위 윤석민이 4일 열리는 최종전에 전격 등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김광현의 3관왕은 아직 유동적이다.

최고시속 152km의 강속구와 낙차 큰 슬라이더를 앞세워 2회와 3회 6타자 연속 삼진을 잡는 등 KIA 타선을 압도하던 김광현은

1010원
로또 당첨금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4회말 유재원에 첫 안타를 맞았다.

이어 이호신의 보내기번트 타구를 서둘러 놓친 김광현은 무사 1,2루를 자초했고 나지완의 보내기 번트로 1사 2,3루에 몰린 뒤 이재주의 투수 땅볼을 잡았으나 홈에 악송구, 순식간에 2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하지만 김광현의 실점은 2개의 실책이 겹쳐 모두 비자책점으로 기록됐다.

5회부터는 다시 김광현이 구위를 찾았고 SK는 6회 김강민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한 뒤 8회초 정근우가 좌선상 2루타를 날려 2-2 동점을 만들었다.



힘들군..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6승으로 다승 1위를 확정된 SK 와이번스 에이스 김광현이 3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KIA 타이거즈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4회말에 2점을 내주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김광현은 이날 경기에서 4이닝 이상 무자책점으로 던지면서 탈삼진 6개 이상을 잡아내면 투수 3관왕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minu21@yna.co.kr

김광현은 8회말 조웅천에게 마운드를 넘겨 승패없이 물러났고 양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연장전에 들어갔다.

한 경기 12탈삼진은 김광현이 데뷔 이후 자신의 최다 탈삼진이며 올시즌에는 손민한과 류현진, 송승준과 타이 기록이다.

가나긴 승부는 연장 13회초 김동건이 좌월 3점홈런을 쏘아올려 SK가 5-2로 승리했다.

잠실에서는 8년만에 '가을축제' 참가를 확정지은 롯데가 장단 14안타를 몰아쳐 최하위 LG를 9-3으로 대파했다.

1회 김민성의 2루타와 가르시아의 적시타 등으로 2점을 뽑은 롯데는 4회 최기문의 우선상 3루타로 1점을 보탬고 5회에는 타자일순하며 5안타와 사사구 2개로 대거 6점을 올려 승부를 결정지었다.

손민한의 역투에 끌려가던 LG타선은 8회말 이대형의 좌전안타와 손인호의 2루타, 안치용의 희생플라이로 3점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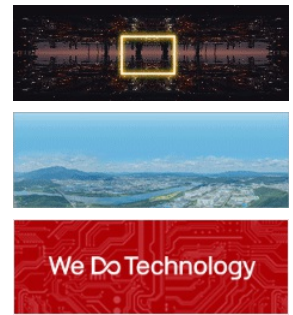
후반기 힘겨운 모습을 보였던 롯데 에이스 손민한은 7⅓이닝을 7안타 3실점으로 막으며 컨디션 회복을 알렸다.

감독 교체 논란에 휩싸인 히어로즈는 이현승이 생애 첫 완투승을 거둔 데 힘입어 2위 두산을 8-2로 물리쳤다.

히어로즈는 0-2로 뒤진 2회 2사 1,2루에서 김민우의 2타점 2루타로 동점을 만든 뒤 정수성이 우월 2루타, 전준호는 3루타를 날려 4-2로 역전시켰다.

5회에는 집중 6안타로 4점을 추가해 8-2로 점수 차를 벌렸다.

김경문 두산 감독은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지은 뒤 주축 투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했지만 1선발로 예상되는 김선우가 5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이닝동안 13안타를 맞고 8실점(자책)한 뒤 강판돼 우려를 자아냈다.

shoeless@yna.co.kr

cany9900@yna.co.kr

🔗 관련기사

<프로야구> SK 마무리 안 '기대에 못미치네'

<프로야구> 히어로즈 박노준, 갈등 봉합

<프로야구> PS 출격 준비 끝.. '전국구 에이스' 손민한

프로야구 히어로즈 새 감독 김시진 유력..조건은 '곧'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0/03 20:55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 채 두 눈만 열렁열렁... 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장관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간접]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2년1개월만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 154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2

💬 67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3

💬 61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4

💬 56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

💬 41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뭐하고 놀까? #홍콩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계약사/제휴문의